

10월 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경기낙관론 부활..다우 1.3%↑	뉴욕증시가 6일(현지시간) 호주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글로벌 경제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며 이틀째 상승함. 특히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상품주가 급등하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음. 다우 지수는 131.50포인트(1.37%) 상승한 9731.25를, 나스닥 지수는 35.42포인트(1.71%) 오른 2103.57을, S&P 500 지수는 14.26포인트(1.37%) 상승한 1054.72를 각각 기록함.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출발함.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주요 20개국(G20)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점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자극했음. 하루 뒤 알코아를 필두로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음. 앞서 뉴욕증시는 지난 주까지 2주 연속 하락했음. 엇갈리 경제지표로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임. 하지만 호주가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월가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그리 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음.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돼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금속가격과 국제유가가 한꺼번에 상승했음. 특히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데 힘입어 금속관련 상품주가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음.
미 달러화 약세로 상품주 강세	미 달러화 약세로 금속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속관련 상품주가 강세를 나타냈음. 다우종목이자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를 비롯해 구리 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등 금속관련 상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함. 미국 2위의 금속생산 업체인 센추리 알루미늄도 금속가격 상승에다 목표주가 상향소식까지 더해져 4% 가까이 올랐음. 크레딧 스위스는 이 회사의 3분기 손실전망치를 주당 55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춘 반면 목표주가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올렸음.
스티글리츠 교수 '주식 시장 비이성적 과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의 정책은 실업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음. 스티글리츠는 아울러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실직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상환능력 부재 등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거대한 돌풍을 헤쳐나가야 하는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는 특히 "주식 시장이 '비이성적인 과열(irrationally exuberant)' 상태에 있는 점이 매우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최근 주가급등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임.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반등..美 달러화 약세 영향	국제유가가 6일(현지시간) 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음. 호주의 전격적인 금리인상도 경기 및 원유수요 개선 기대감을 자극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47센트(0.7%) 상승한 70.88달러로 마감했음. 호주가 주요 20개국(G20)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한 점이 원유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음. 금리인상이 글로벌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해석됐기 때문임. 여기에다 미 달러화 약세도 유가상승에 일조했음. 억만장자 투자가인 T. 분 피켄스 BP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이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친 점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피켄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가가 올 연말까지는 배럴당 75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음. 특히 연말까지 85~9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에는 평균 유가가 80달러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음. 피켄스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더욱이 "중국이 엄청난 양의 원유를 사용하게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켄스 "유가 100달러 놀랄 일 아니죠"	억만장자 투자가인 T. 분 피켄스 BP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장은 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유가가 올 연말까지는 배럴당 75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 70.41달러로 마감했음. 그는 특히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85~90달러선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에는 평균 유가가 80달러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음. 피켄스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당연히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더욱이 "중국이 엄청난 양의 원유를 사용하게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음. 그는 "중국은 현재 원유재고를 축적하고 있다"며 "원유 수요가 급증하면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중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피켄스는 그러나 미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피켄스는 그동안 미국이 원유 수입을 줄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음. 그는 이날도 디젤유를 사용하는 대형 트럭들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할 경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음.
IMF "ECB, 향후 1년간 금리 올릴 필요없다"	요르그 데크레신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중앙은행(ECB)은 향후 1년간 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다우존스를 인용, 보도했음. 데크레신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년 정도를 볼 때 ECB는 매우 경기 부양적인(accommodative)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 정부들에 경기 부양을 위해 취했던 특별한 조치들로부터 시차를 두고 차별적으로 빠져 나오는 출구 전략(staggered exit)이 촉구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정부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조(coordination)라는 것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거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